

4

전남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오 수 성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1. 들어가면서

현 실 속에는 모순이 있
기 마련이고 또 현실
은 모순에 의하여 추동된다.
80년 광주항쟁은 그 예리한
창끝이 우리를 강타한 것이
며, 모순의 균화발이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어떠
한 지식, 지식인도 민족적 최
앞에서는 사면될 수 없다는
반성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특히 전남·광주의 지식인들
에게는 80년 광주항쟁이 여
러 형태의 부담감으로 작용하
였고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80년 이후 암담하리만큼 험악

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1.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연구의
실상과 과제 :
대구사회연구소
2.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
성과와 전망
3. 제주 4·3 탐구의 현상학 :
제주 4·3 연구소
4. 전남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5. 영남노동운동연구소
6. 충북지역연구회
7. 경기지역사회연구소
8. 경남사회연구소

한 5공화국 시절, 그들은 더
욱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사상
과 학문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침묵과 냉소로 지새웠던 시절
이었다. 실제로 경험한 사실
이 왜곡되었는데 침묵만을 강
요할 때, 지식인의 한계를 느
끼며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이런 무력감의 지속은 오히려
5공화국에 대한 소극적 협력
이라는 자성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들이
1981년 몇몇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80년 광주항쟁과 연관되어
해직된 전남대 교수들과의 유
대를 강화하면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어떤 조
직적인 형태를 띠었다기보다
는 아마도 80년 광주항쟁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시작된 것

이다. 이 모임에서는 해직교수들의 복직 및 재정 지원 방안, 광주항쟁에 대한 평가, 뜻있는 교수들의 확보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1986년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민주화에 발맞춰 그 중심축에서 전남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수가 두번째로 시국선언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랐고 이를 계기로 연대의 기쁨이 마련되었다. 서명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민주화운동의 틀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것이 19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탄생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항쟁과 그 이후의 지역사회 운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광주·전남의 경우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은 전국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충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학문적 성과와 지식인들의 학문적 자세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학간 의사소통의 부재, 학문적 토론의 부재, 건설을 위한 비판의 부재,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었다. 이것은 도시의 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학과 교수의 수뿐만 아니라 당시만 하더라도 봉건적 운영에 시달리던 지방 사학으로 인한 폐해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지역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한 정치적 투쟁 일변도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의 파도가 지나간 이후 학문 외적인 요소에 따라 움직이는 학계가 아니라 건전한 상호비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아가 민족운동에 기여하는 학문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명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1988년 전남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립 당시의 뜻을 유지하고 있다.

2. 설립 배경과 취지

전남사회연구회는 1년 동안의 모색과 4개월에 걸친 준비 과정 끝에 1988년 10월 15일 회원 54명을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학술 운동을 지역 차원에서 조직화하고 학술 연구자들의 연대성을 통해 민족·민주 운동의 고양과 학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취지 아래 기성 학회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관과 인식틀의 공유를 목표로 창립하였다.

그때까지의 지식인의 사회적 발언은 그들의 본분인 학문 연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서명 등을 통한 양심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게 되면 지식인의 사회적 발언도 학문적 연구와 사회 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족 운동에서 연구자들의 정당한 자리이고 몫이다.

산업간·계층간·지역간 불균등 발전 구조를 고려하면서 지방적 특수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역사회의 역사와 생활 환경,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등에 관한 과학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지방 학계를 활성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다운 학문 발전, 나아가 참다운 민족 공동체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공허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연구 활동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학술 운동은 지역연구와 사회 현실 비판에 터한 지역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즉, 발전을 위해 현실 인식의 비판과 지역연구의 심층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학술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조직적·실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차원이다. 이는 운동의 과학화에 속하는 것으로 지역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

석하고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에 대한 구체적 분석, 사회적 갈등 관계에 대한 이해, 발전에 대한 예측과 비전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둘째, 조직적 차원이다. 이는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공동 연구는 학술 연구자에게 문제의식의 공유, 인식 및 분석 능력의 공유를 통한 전문 연구 역량의 확보라는 강점들을 갖는다. 공동 연구는 목적의식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술 연구자들을 조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사회 환원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의 확보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사상적 통일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실천적 차원이다. 이는 과학의 운동화에 속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지역 대중에게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한국 민족·민주 운동의 부분으로서 학술운동은 운동의 과학화와 과학의 운동화를 갈망하는 학술 연구자들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모순들은 한국 사회 전역에 산재하여 있는데, 특히 이것들이 지방에서 더욱 격화되어 나타난다. 서울이라는 중심 고리를 연계하는 약한 고리로서의 지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지방은 현 단계 한국의 많은 모순들이 첨예하게 집적되어 있어 그 하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민주 운동은 지역 모순을 각 지역의 특수한 조건에 적당한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전체적 모순의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모순의 중요성은 지방 거주 학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술 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의 경우 운동은 강하나 이론은 약하다는 명제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에 기초한 것이다.

3. 조직 및 운영

1995년 4월 현재 전남사회연구회의 회원은 65명이다. 집행부는 회장 1인, 간사 5인(총무, 기획, 연구, 재정, 섭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94년 6월부터 '5월 연구회'라는 분과가 따로 조직되어 광주의 특성에 맞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4. 활동 내용과 성과

전남사회연구회의 활동은 창립 이후 1991년까지 상당히 활발하였다. 그 이후 소련의 붕괴와 문민정부의 출범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활동이 침체하였다. 현 시점에서 연구회가 새로운 모색을 하여야 하는 전환점에서 있다.

전남사회연구회의 사업은 월례 발표회, 학술대회, 세미나, 연수회, 토론회, 지역사회 연구단체협의회 연대 활동, 지역 운동 단체와의 연대 등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1) 월례 발표회

월례 발표회는 회원간의 학제적 교류를 목표로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회원들이 주로 발제와 토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월례 발표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방 이후 사회 변화와 학술 연구자의 현실 인식
- 지역 불균등 발전과 지역 경제
- 80년대 사회운동의 전개

- 학력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체제 세력과 현 정국
- 해방 직후 지방 정치, 사회사 연구
- 여·순사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국악 교육의 목적
- 철학의 근본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철학 논점에 대하여
- 독립운동기의 외교론과 외교 활동
- 화이트칼라 노동자계급의 운동
- 한국 근대 도시의 초기적 발전 과정에 관한 계획사적 검토
- 중국의 문예 대중화 논쟁 연구
- 광주 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 전남지역 농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 우루과이라운드와 우리의 대응 자세
- 일제하 실력 양성 운동론 연구
- 전환기 세계와 제3세계의 미래
- 지역 여성운동의 현황과 전망

2) 세미나

문학과 미술에서 나타난 광주 민중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세기기 위하여 '광주 민중항쟁과 문학·예술'이라는 세미나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 5월 문학의 정신사적 배경
- 5월 이후의 문학적 성과와 과제
- 광주 민중항쟁과 미술

3) 집담회

92년의 침체기를 거치면서 93년 6월부터 월례 발표회 대신에 집담회 형식으로 바꾸어 자유스러운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집담회에서 토의된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적색공포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 금융실명제
- 소설 『늑두장군』에 얽힌 사연
-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연구사 정리

- 최근 사회범죄의 내용과 배경에 대한 심리학적·사회학적 고찰

4) 공개 토론회

전남사회연구회의 공개 토론회는 지역사회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대하여 개최되었다.

- ◇ 새로운 정치 현실과 민족·민주 운동의 진단
 - 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의 방향과 전망
 - 제도정치 세력의 대응과 전망
- ◇ 광주 지역 14대 총선 평가와 향후 전망
 - 14대 총선결과와 그 의미
 - 14대 총선평가와 민족운동의 방향

5) 학술 대회

학술 대회는 지역 문제 위주로 선정된 대주제를 축으로 기초 발제, 소주제별 발제, 종합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 1980년대 광주·전남 지역의 구조 변화와 지역 운동
 - 광주·전남 지역 중소자본의 위상 변화
 - 전남지역 교사운동의 전개 과정과 전망
 - 광주·전남 지역 노동자의 상태와 노동 운동
 - 광주·전남 지역 문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6) 연수회

연수회는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두번씩 가졌다. 하계 연수회는 지역사회 연구단체 협의회에서 연합연수회로 실시하는 것이다. 동계 연수회는 회원 자체 연수에 해당되며 역사탐방을 겸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 7) 지역사회 연구단체협의회와의 연대 활동
1985년 7월 지리산 피아골에서 개최한 지방

사회연구회 하계 수련회에 광주, 전주, 부산 지역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실상의 연합수련회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88년 8월 경주에서 '지역문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1회 지역학술단체 연합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연구단체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1989년 8월 변산반도에서 '지역사회운동과 학술운동'이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가졌으며, 여기서 전교조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 대구에서 지역사회 연구단체협의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그 후 '9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지역운동의 전망', '지방자치와 지역운동'이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최근 경상대학교의 『한국 사회의 이해』 교재 사태에 즈음하여 전북의 호남사회연구회와 부산·경남의 지역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세 단체의 회원들은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학문, 출판,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8) 5월 연구회

광주 민중항쟁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분과형태로 5월 연구회를 1994년 발족하여 자료수집과 정리 및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자도시, 광주에서의 역사만들기
- 광주 민중항쟁의 심리적 총격과 심리극적 성취
- 5·18과 구술사
- 외국학자가 본 광주항쟁의 관찰
-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항쟁 주제

5. 한계 및 전망

지역학술단체로서 전남사회연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내부적 역량문제, 지역의 다른 단체와의 관계 설정문제, 그리고

재정상의 문제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모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전환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남사회연구회의 전반기 활동은 알차고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고 생각되나, 후반기 활동은 상당히 저조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외적 상황의 변화와도 연관될 것이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진보와 개혁의 의미가 희석되었다.

창립 당시 이질적인 전공분야를 망라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후 논의에서 점차 전문화되었고,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대학 내부의 운영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회를 통한 학술적 교류가 마진하게 되었다. 그간 분과 조직 등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연대성이 희박해지며 정기적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관계로 회원들이 연구회에 대한 주체감을 갖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연구회 회원들이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단체(환경공해연구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시민연대모임, 각종 연구소 등)에 참여함으로써 연구회에 대한 열의가 분산되고 있다. 1995년 3,4월에 열린 활로개척을 위한 전남·광주 대토론회에도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나 연구회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연구회 자체의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민주화와 연관된 단체들은 민족·민중 운동의 실천적 역량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조직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미약한 편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 연구자들과 긴밀한 유대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중앙의 저명인사와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 연구자들의 자기 반성도 필요하나, 상호보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연구회 회원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를 실제로 풀어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재정적으로 심포지엄 등의 큰 행사

를 제외하고는 회원들의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근자에는 활동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확보의 문제는 연구소로의 전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 4년간은 1년에 몇 번 집담회와 연수회만을 가졌을 뿐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다. 다만 5월 연구회가 분과 형태로 시작되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전남사회연구회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연구회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립 당시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 필요성

을 기초로 하여 이 과제를 담당할 조직적 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예컨대, 연구회에서 연구소 형태로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거나 지역의 다른 연구소와의 통합을 통한 변신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오수성/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Osnabrück 대학 초빙과학자 등을 지내고, 현재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생활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광주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적색공포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등이 있고, “지역갈등의 요인으로서의 성격 특징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